

‘광주청년스테이션’ 3개월새 2천명 상담 ‘인기’

시, 동명센터·상무센터 2곳 운영
일자리·역량강화·심리상담 제공
청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호응
“마음회복·개인 역량 강화 지원”

청년 구직을 위한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이 구직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와 상무센터 2개소에 2000여명이 다녀갔다. 해당 사업은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4월 30일 문을 연 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는 두달여만에 청년구직자 1700여명이 찾았고, 5월31일 개소한 상무센터도 한달여만에 300명이 방문했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지역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맞춤형 일자리 종합상담 △구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문 심리상담 등 청년 일자리 분야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문 심리상담과 취업위업업, 경력(재)설계, 창업·장직, 일상 활력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이 최종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프로그램인 ‘신체단단’, ‘마음단단’이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심리적 피로도를 낮추고,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회복에 도움을 받았다.

또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모의면접, 면접 특강, 경력재설계 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도와주는 ‘취업스킬업’도 지역청년들이 자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탐색이나 기업현장 특강, 직

무체험(창업), 기업탐색 등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신체교정운동, ‘미라클 루틴’ 만들기, 재테크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 수업으로 일상의 지혜를 얻고 활력 증진을 꾀했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 청년에게 무료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각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권운숙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을 통해 마음을 회복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고용노동부는 최근(7월 12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현 교육청년국장과 홍경의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 이성룡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일자리 분야 협력방안과 청년 성장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전략작물직불금 하계 신청기간 연장

전남도는 쌀 적정 생산 정책을 많은 농업인의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장 신청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일반벼를 총체벼(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벼를 재배한 농가가 하계조사료 지원 조건에 충족해 전략작물직불금 ‘예비총체벼’로 신청하면 정부의 쌀 수급 상황에 따라 하계조사료 수확 시, ha당 430만원을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벼 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등의 재배를 확대해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0.1ha 이상 실제 논 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논에 두류, 조사료, 옥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다.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이행검증 후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식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100만원, 두류·가루쌀은 2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동계에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ha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품목으로 식용옥수수를 추가해 ha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논콩은 녹두, 팥 등을 포함한 두류로 품목을 확대, 두류와 가루쌀 지급단가는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하계조사료 지급 대상은 신청 직전 연도 벼를 재배한 필지에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2018-2023년 정부 지원 타작물 사업에 참여했던 농지까지 포함돼 지급기준이 완화됐다.

오지현 기자



동구, 실버&조이 평생학습단 발대식
신동하 광주 동구 부구청장과 조순계 조선이공대총장, 실버&조이 평생학습단들이 17일 조선대이공대 3호관 기공홀에서 열린 동구 실버&조이 평생학습단 발대식에서 배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무등산 보전 위해 정상부 군부대 이전 필요”

광주연구원 “자연 보전기능 강화”
국립공원 브랜드·민관협력 등 제안

광주연구원이 무등산국립공원의 보전기능과 생태관광 기능 개선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7일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무등산국립공원 보전및 생태관광 기능 개선방안’을 통해 무등산국립공원의 보전과 생태관광 기능 강화, 국립공원의 브랜드 강화, 무등산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연구원은 개선방안에서 무등산 지

속가능성 증대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보전기능과 생태관광 기능이 조화된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국립공원 브랜드 강화와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보전기능 개선을 위해 핵심지역 지정 및 고유생태계 복원, 정상부 군부대·방송통신시설 이전 및 복원이 필요하며, 생태관광 기능개선을 위해 정상부 접근 탐방로 개선 및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저지대 탐방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생태관광 및 지오투어리즘 인프라 확충, 광주 국립공원도시 지정을 제안했다.

여기에 국립공원 브랜드 강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콘텐츠 강화, 국제보호지역

지정 확대,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를 위해 무등산권 중앙 및 지자체 협력 강화, 무등산권 민·관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광주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사람과 자연의 조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자연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생태적 가치 증진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방문객 수 증가, 탐방활동 및 이용계층 다양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의 현안 과제인 정상부 복원,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및 차별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온라인으로 개편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방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에서는 경진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더욱 간편하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접수에서 추천까지의 처리 과정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자금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진원에서 운용 중인 2024년 전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27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3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20억원 등 총 3400억원 규모다.

온라인 접수는 경진원 자금시스템 누리집(www.jnfund.kr)을 통해 가능하다. 전남도는 온라인 접수를 처음 사용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기 쉬운 온라인 신청 방법’을 파일로 제작해 누리집에 게재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비온 뒤 약수터 물 주의하세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 장마철에 산행이나 야외활동 때 먹는물 공동시설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7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먹는물 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지칭한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에 3개소, 남구 대각사, 광산구 용진, 산정약수터 등 총 6곳을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연 4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하절기(7월-9월) 월 2회 검사하는 등 연 12회로 확대해 검사하고 있다.

약수터로 알려진 먹는물 공동시설이 이용할 때는 시설 게시판에 비치된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하절기에는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적합’ 판정받았더라도 강우가 잦고, 많은 비가 내린 이후에는 수질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손을 씻거나 가법계약을 쓰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난해 7-9월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당 총 6회 검사를 실시해 용진, 산정, 중심사 입구, 대각사는 부적합 사례가 없었지만, 청풍샘터 2회, 산장광장 5회까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항목은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일반세균으로 조사됐다.

노병하 기자

김영록, 파리올림픽 전남선수단에 격려 서한문

8개 종목 9명 메달 기대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가 17일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 소속·출신 선수 9명에게 격려 서한문을 발송하며 선전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구슬땀을 흘리며 실력을 연마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그동안의 값진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 선수단은 근대5종 서창완(국군체육부대), 양궁 남



수현(순천시청), 배드민턴 정나은(화순군청), 펜싱 최세빈(전남도청),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육상 김장우(국군체육부대) 선수

다. 여기에 전남 출신 배드민턴 안세영(나주 출신·삼성생명)이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사격 이보나(신안 출신·부산시청), 수영 김민섭(여수 출신·독도스포츠단)도 무대에 오른다.

특히 근대5종 서창완은 ‘2024 국제근대5종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라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기대되고, 양궁 남수현이 올림픽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대기록에 도전한다.

2024년 파리올림픽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며, 206개국 1만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2개 종목에 총 329개의 경기를 펼친다. 한국은 22개 종목에 262명(선수 144, 지도자 118) 선수단을 파견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의 명예를 빛낼 우리 선수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